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	http://www.motie.go.kr
2018년 3월 2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2.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8. 3. 21.(수)	담당부서	입지총괄과
담당과장	서가람 과장 (044-203-4430)	담 당 자	정근용 서기관(044-203-4433) 김열규 사무관(044-203-4456)

「규제 완화」, 「민간투자 유치」, 「정부재정 투입 확대」로

"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"

- 창업·혁신, 근로·정주환경 개선으로 '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.2만개 창출 -

[①창업] 지식산업센터 등 젊은이들이 원하는 신산업 및 창업 공간을 대폭 확대
[②혁신] 벤처기업, R&D지원 및 문화·복지시설이 융·복합 집적된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
[③근로·정주환경]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·문화·편의·정주시설 등을 지속 확충

□ 산업통상자원부(백운규 장관)는 **최근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 해소**를 위해 **범정부적인 대책 중의 하나**(3.15일 후속과제)로서,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**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**을 담은 **'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'**을 3. 22. 발표했다.

○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젊은이가 선호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후산단을 ①**창업**과 ②**혁신 생태계**, 그리고 ③**우수한 근로·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**한다는 내용이다.

○ 이를 위해 ①**규제완화**를 통한 **민간투자 유치 촉진**, ②**정부재정 투입 확대**('18년 산업부 8개 사업 예산 1,328억원+α), ③**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**을 위한 **제도개선**을 추진하려는 것이다.

○ 우선,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**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**해 집중 지원하고,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**'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< 무엇이 달라지나? >

◈ **(그간 산단 지원대책)** 지식산업센터 등 산단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**기반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**한 측면이 큼

◈ **(이번 대책)** 어려운 청년고용 여건을 감안해 **산업단지를 청년 친화 공간**으로 만들기 위해 **하드웨어 구축**과 함께 **제도개선도 병행** 추진

○ **규제완화, 민간투자 유치, 정부재정 투입 확대** 등을 통해 **창업·혁신, 근로·정주환경 개선**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

❶ (창업)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

▲ **신산업 유치, 창업공간 확충**을 위해 **지식산업센터 대폭 확대**

* ①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중 확대(20%→ 30~50%) ②임대사업자의 임대 허용(현행 센터 건립자만), ③산업단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

▲ **창업 초기기업 등**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**입지제도 등 개선**

* ①산단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 폐지, ②창업기업에 대한 산단 우선 입주권 부여

▲ **휴·폐업 공장 리모델링**을 통한 **저렴한 임대공장 제공** 추진

▲ **청년창업 활성화**를 위해 **대학**에 **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** 검토

❷ (혁신) 중소·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선도

▲ 벤처·창업기업, 문화·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**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**

▲ 지방 대학생들의 직접 고용이 높은 **산학융합지구를 확대**

▲ **산학연 공동 비즈니스 협력모델**(제품기획-R&D-생산-판매) **개발·확산**

▲ **거점 국가산단 중심**으로 **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**

❸ (근로환경)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

▲ **청년들이 쉴 수 있는 편의공간 확충 등**을 위해 **제도를 개선**

* ①지원시설구역내 일부업종(카지노 등)을 제외하고, 자유로운 입주허용, ②노후산단을 리모델링시, 공용 쉼터 확보 의무화, ③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 합리화로 복합구역 확대

▲ **산단별 특성**과 **지역의 현장수요**를 반영, **산단 지원 관련 범부처 지원 사업들**을 **산단별 수요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** 추진

* (현행) 지자체가 개별 사업 신청→ (개선) 지자체가 패키지로 사업 신청

try of Trade
try and Energy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3-22 09:18:38

< 추진배경 >

□ **산업단지**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.2%('16년)를 차지하고 있어 **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** 측면에서 **잠재성이 크다.**

○ 그러나,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기술(IT)·지식산업 등 **신산업 비중이 낮고,** 착공 30년이 지난 **노후산단 증가로 근로·정주환경도 악화**되고 있다.

* 청년(20~29세)층의 취업 비중('16): (전체 제조업) 17%, (IT산업) 23%
IT업체수 연평균 증가율('17): (산업단지 내) 3.8%↑, (산업단지 외) 5.6%↑

**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: ('17) 91개→ ('18) 135개→ ('22) 278개

○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카라반('17. 10. ~ 11.) 등을 통해 의견 수렴결과, **젊은이들은 '성장 가능성이 높고 비전이 있는 기업'**과 **'깨끗한 근로·정주환경'**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에, **향후 3~4년간 어려운 청년 고용여건**을 감안해 노후 산업단지를 창업과 혁신생태계, 우수한 근로·정주환경을 갖춘 **'청년 친화형 산업단지'**로 바꾸는데 **정책적 역량을 집중**해 나갈 필요가 있다.

< 중점 추진과제 >

1 창업입지와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활력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

○ 산업단지 내 **청년들에게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**하고, 정보기술(IT)·지식산업 등 **신산업 유치 촉진**을 위해 **관련 규제도 완화***하여 **지식산업센터**(舊아파트형공장)**를 대폭 확대****할 계획이다.

* ①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중 확대(20%→ 30%~50%), ②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 허용(현행: 설립자만), ③산단 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허용 등

** 전국 지식산업센터(조성완료): ('17) 594개 ➔ ('18) 685개 ➔ ('22) 1,100개 목표
- 1개 센터(500억 소요)당 평균 50개사 입주, 회사당 10명 근무, 창업기업 비중 20~60%
- '18년 산단 내 민간투자(추정): 2.1조원 ('18년 추가(잠정): 산단內 42개, 산단外 49개)

○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를 필요로 하는 창업·벤처기업 등을 위해 **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**(900㎡)을 국가산단부터 **단계적으로 폐지**하고, 산단 입주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**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**하기로 했다.

○ 관리기관이 산단 내 **휴·폐업 공장·부지 매입** 후 정부·민간 매칭을 통해 리모델링하여,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 등에게 **저렴하게**(주변시세의 70%) **임대공장을 제공**할 계획이다.

○ '산단-대학-연구소 연계형' 창업지원을 위해 **「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」 신설을 검토**해 지역 거점대학 유휴시설·부지에 기업 연구관과 창업기업육성센터를 조성, **기술기반형 창업을 지원** 추진한다.

2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지원으로 혁신성장을 선도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○ 산단에 **「혁신성장촉진지구」**를 신규로 지정, **벤처·창업기업**을 집적*하고, 일하기 좋은 근로·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문화·편의시설 등도 복합 설치하여 **미니 서울디지털산단**을 조성한다.

* 서울디지털산단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건폐율·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, 개발이익 재투자 및 재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 개편 추진 (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)

○ 산학연간 **'제품기획-연구개발(R&D)-생산-판매'**를 공동으로 하는 **비즈니스 협력모델**을 구축('18년 591억 원, Mini-Cluster(MC))하고, 산·학간 인력양성과 취업이 상호 연계되는 **산학융합지구**('18년 101억 원)**를 확대한다.**

* MC비즈니스 협력모델 구축: ('17) 92개→ ('18) 110개→ ('22) 300개 목표

** 산학융합지구 조성완료: ('17) 7개→ ('18) 8개→ ('22) 15개 목표
- '18.3.23일 울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완료되어 캠퍼스관(2개동)과 기업연구관(1개동) 구축, 울산대 화학과 등 3개 대학, 6개 학과, 957명의 학생, 40개 기업연구소 입주

○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혁신을 위해 **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**('18년 총 782억원)해 **기업 경쟁력을 향상**을 지원한다.

* 스마트공장(전체, 누적): ('17) 2,550개→ ('18) 3,700개→ ('22) 13,000개 목표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8-03-22 09:18:38

3 젊은 근로자들의 '삶의 질' 증진을 위한 근로·정주환경 개선

○ 편의시설 확충, 접근성 향상 등 편리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**입주업종 규제**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*하고,

* 일부업종(카지노·단란주점 등)을 제외한 PC방·노래방 등의 입주를 자유로이 허용

- **개발사업자**의 **투자유치**와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**개발이익 환수 부담제도**를 **합리화***하고, 노후산단 리모델링**시, **공용 휴식공간**을 확보토록 의무화(건축법 국회 심의중)하는 등 **제도개선** 추진한다.

* 지원시설이 최대 50%까지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 확대('18년 신규 3개 조성)
-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'18년 1,300억원 민간투자 예상

** '18년 산단환경개선펀드(500억+α) 투자를 통해 최소 1,4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

○ **산단 특성**과 **지역수요조사**를 통해 **범부처 산단 지원사업**을 **수요 맞춤형으로 묶어(패키지) 지원**하고, **지원사업도 확대**할 계획이다.

* '18년 산업부·고용부·문체부·국토부 등 7개 부처, 총 20개 사
- (산업부)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, (고용부) 어린이 집, 통근버스·기숙사 신축 지원 등,
(문체부) 개방형 체육관 등, (국토부) 배후지역 임대형 행복주택 등

<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>

□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「**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**」를 **구성·운영하기로 했다.**

* '18년 산업부·고용부·문체부·국토부 등 7개 부처, 총 20개 사업

□ **'18년 예산사업**은 **차질없이 집행을 추진**하고, **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**을 위해 **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다.**

□ 산업부는 이번 대책 등을 통해 **'18년 민간투자 2.4조 원**이상 **유치**할 것으로 예상하고, **'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.2만개 창출**을 기대하고 있다.

< 첨부 >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 (관계부처 합동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정근용 서기관(☎044-203-4433),
김열규 사무관(☎044-203-44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